

## 한국대학생과 국내체류 외국대학생 간에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의 차이\*

노경란      방희정<sup>+</sup>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인종범주로 구분되는 사회집단(한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 대학생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대학생 간에 인종에 대한 암묵적 및 명시적 태도를 비교하였다.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와 명시적 태도질문지(명시적 선호도검사, 집단에 대한 호감도, 신뢰성, 사회적 거리에 대한 평정척도)를 통해 암묵적 및 명시적 태도를 측정하여 반복측정설계에 의한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의 인종에 대한 암묵적 및 명시적 태도는 인종범주(한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대학생은 암묵적 및 명시적 수준에서 모두 강한 내집단 선호를 나타냈으며, 외집단에 대해서는 이중적이었는데 백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선호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흑인과 동남아인에 대해서는 비선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내 체류 외국대학생은 암묵적 태도에서 백인 선호를 나타낸 반면, 명시적 태도에서는 백인선호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험자의 인종에 따라 암묵적 수준과 명시적 수준에서 인종에 대한 태도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국내체류 외국인과는 달리 한국인은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가 암묵적 수준과 명시적 수준에서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다. 다인종, 다문화, 세계화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한국인의 인종에 대한 태도특성들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인종, 명시적, 암묵적, 태도, 한국대학생, 외국대학생**

한국사회는 단일민족국가로부터 다문화 다인종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형성되면서 집단 간에 충분한 근거없이 선호나 편견적 태도가 나타나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와 문화가 서로 접촉하게 될 때, 문화 간과 문화 내에 4가지의 변화모형을 볼 수 있다(Santrock, 2004). 먼저 소수집단이 우세한 집단에 흡수되어 버리는 동화모형,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이 다수 문화에 적응하는 모델, 구성원들이 자신의

행동을 사회적 맥락에 맞춰 변경하면서 활발한 교체과정 이 일어나는 교체모형,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다른 문화권 과 긍정적인 정체성을 발달시키면서도 본래 문화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문화모형(복합문화모형)이 있다. John Berry(1992)는 다문화사회란 두 개 이상의 문화를 이해할 때, 모든 구성원들이 집단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다른 집단에 대한 수용과 인내를 발전시키며, 집단 간의 접촉과 공유에 관여하고, 서로의 언어를 배우게 된

\* 본 논문은 2008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창회 장학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sup>+</sup> 교신저자 : 방희정, (120-808)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 3277-2644, E-mail : hjang@ewha.ac.kr

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는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 물결 속에서 민족주의를 접합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보여진다(진덕규, 1999). 우리사회가 이러한 다문화사회를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여러 집단 간에 서로에 대한 감정과 태도의 질을 분석하는 것이다(Lo Coco, Inguglia, & Pace, 2007).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로 이동하는 현시점에서 한국인들이 인종범주로 구분되는 사회집단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대학생들과 비교하였다.

####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의 구분

태도는 두 수준에서 존재할 수 있다. 명시적 태도는 의식적이고 쉽게 보고할 수 있는 반면, 암묵적 태도는 자동적이고 통제하기 어렵다(Aronson, Wilson, & Akert, 2005). 암묵적 연합검사를 개발한 Greenwald는 암묵적 태도란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고 심지어 의식적인 자각으로부터도 감춰져 있는 강력한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암묵적 태도는 점화기법이나 암묵적 연합검사와 같은 측정방법이 개발되면서 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는 행동적 수준과 신경계 수준에서 구분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Dovidio, Kawakami와 Gaertner(2002)는 자기보고식 검사와 점화기법을 사용하여 백인이 흑인 파트너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언어와 비언어적 행동 내에서 보이는 편견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 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가 행동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즉 명시적 태도는 의도적이고 잘 고려된 반응을 조성하는 반면, 암묵적 태도는 개인이 충분히 자각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평가들로서 비언어적 행동과 같이 통제가 어렵거나 통제를 하지 않는 반응들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행동적 수준에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가 구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계 수준에서도 구분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Phelps 등(2000)은 백인 피험자들이 흑인과 백인 남성 얼굴에 반응할 때 amygdala의 활동을 fMRI를 사용해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친숙하지 않은 흑인과 백인 얼굴을 관찰할 때 편도체(amygdala)

가 활성화되는 강도는 암묵적 연합검사(IAT)와 상승된 경악반응(potentiated startle)과 같은 간접적인(무의식적인) 인종평가 측정치와 연관되어 있는 반면, 직접적인(의식적인) 인종태도와는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친숙하여 긍정적으로 간주되는 흑인과 백인 얼굴자극을 관찰할 때에는 이전과 같은 유형의 편도체활동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흑백 얼굴에 대한 백인 피험자의 편도체 반응이 사회집단에 대해 문화적으로 획득된 정보의 함수이며, 이는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Cunningham 등(2004)은 자동적인 사회적 평가와 통제된 사회평가를 구성하는 신경계요소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fMRI 를 실시한 후, 암묵적 연합검사(IAT), 현대 인종차별 척도(Modern Racism Scale)와 내적 동기척도(Internal Motivation to Respond Without Prejudice Scale)를 실시하여 편견지수를 산출하였다. IAT 점수와 편견지수와의 차이를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 간의 태도감등으로 정의하였다. 백인피험자들에게 흑인과 백인얼굴을 30ms동안 제시했을 때에는 편도체가 백인보다 흑인 얼굴에 대해 더 활성화되었으나, 525ms동안 흑백 얼굴이 제시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차이가 감소되었으며, 통제 및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전두엽 영역이 백인보다 흑인 얼굴에 대해 더 활성화되었다. 또한 간접적 행동 측정(IAT)에서 인종에 대한 편견이 클수록 흑인과 백인얼굴 간에 편도체의 활성화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두엽 활동은 30ms에서 525 ms에 이르기까지 편도체 활성화에서 흑인과 백인 간에 차이의 감소를 예측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사회집단에 대한 자동적인 과정과 좀 더 통제된 과정 간에 신경계의 차이가 있으며, 통제된 과정이 자동적 평가를 조절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모두 종합해볼 때,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는 행동 수준과 신경계 수준에서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다.

####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이론

과거에는 인종에 대한 태도형성과 관련하여 편견이 내적 성향을 반영한다고 보는 내적 상태이론과 사회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사회적 반영이론의 두 접근방법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민경환(1989)은 사회적 편견을 집단과정과 개인과정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편견이란

두 집단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해야하는 현실에서 집단 간 갈등이 불가피하므로 상대집단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는 현실적 집단갈등이론과, 사회인지적 접근이나 사회역동적 접근처럼 편견을 개인적 과정으로 보는 입장으로 구분하였다.

편견을 개인적 과정으로 보는 입장 중에서 민경환(1989)은 편견에 빠지기 쉬운 독특한 성격을 심리역동적인 측면에서 권위주의 성격이라고 지칭하고 Adorno 등이 1950년에 소개한 척도를 토대로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를 제작하였다. 권위주의 성격이란 권위에 복종적이고, 약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참지 못하며, 관습적 가치에 융통성 없이 순응하고 도덕은 옳고 그름이 분명한 것으로 믿으며 냉소적이고 미신적인 경향을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권위주의 성격 특성을 많이 가진 사람은 외집단에 대해 적대적이고 편견적이며 인간을 이해할 때 고정관념적 집단분류 도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민경환, 1989; 임기순, 2005).

최근에는 이전에 연구들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종에 대한 태도를 사회화 인지발달적인 변화의 결과로 보는 사회인지적 접근방법(Aboud, 1988)과, 사회정체성이론(Tajfel & Turner, 1979) 및 자기범주화이론(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을 통합한 접근 방법이 가장 지배적이다. 사회인지적 접근이론에서는 편견과 내집단 선호가 발달과 함께 감소한다고 제안한다. 다시 말하면, 인지능력이 발달해감에 따라 자기중심성을 탈피하면서 인지적 요소가 인종에 대한 사회화 과정에 질적으로 다른 영향을 미치며 발달과정에서 편견이 사라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접근 방법은 인지발달과 인종태도 발달 간에 관계를 연구하는데 유용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정체성이론과 사회범주화이론을 통합한 모델에 따르면(Nesdale, 2000), 인종에 대한 선호란 자기범주화와 자신의 사회집단과 동일시하는 과정의 함수로 설명하는 한편, 편견은 자존감 증진을 위해 내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외집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동기적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이 모델은 인종태도와 관련된 집단 간 역동을 밝히는데 유용한 이론이다(Lo Coco, Inguglia, & Pace, 2007).

그러나 인지발달과 함께 인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한다는 사회인지적 이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실

에서 연령증가와 함께 더 많은 차별행동이 관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태도의 암묵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편견적 태도란 무의식적 정신과정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Wegner, 2002)와 태도 측정 시 너무 직접적인 질문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Banaji, Baron, Dunham, & Olson, 2007). 암묵적 태도발달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Baron & Banaji, 2006), 다수집단인 경우 5-6세에 이미 암묵적으로 편견적 태도가 형성되고, 성인기에도 안정적인 유형을 보이며, 10세 전후에는 인종에 대해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최근에는, 인종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고정관념, 편견, 차별과 같은 여러 현상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보고식 측정방법보다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암묵적인 형태로 측정하는 추세이다.

#### 소수집단과 다수집단에 대한 이론

사회적 편견 형성은 외집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 소수집단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소수(약자)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는 개인 및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천으로서 사회 통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김해숙, 2007).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정치·경제·사회적 권리가 차별적으로 주어짐으로써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소수집단과 다수집단 간에 사회적 지위 면에서의 차이는 집단 내 구성원 자신 뿐 만 아니라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정서, 신념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인종에 대한 태도를 연구할 때에는 소수집단과 다수집단을 구분해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Phinney, 1989). 1970년대 이후부터 소수집단에 속하는 미국의 아동들에 대한 연구 결과, 내집단의 지위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인종에 대한 태도 및 동일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소수 집단의 아동들은 자신의 인종집단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다수집단에 긍정적인 형용사를 많이 귀인시켰다. 반면에 다수집단의 아동들은 모든 소수집단에 부정적인 특성을 귀인시켰다.

소수집단의 외집단 선호경향은 암묵적인 태도검사에서도 확인되었다. Dunham, Baron과 Banaji(2007)는 미국계 히스패닉 아동들이 또 다른 소수집단인 흑인과 비교했을

때와는 달리, 다수집단인 백인과 비교될 때에는 내집단 선호나 내집단과의 동일시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Dunham 등(2007)은 인지-정서 균형 모델에 의거하여 내집단이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집단과의 동일시나 내집단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억제하고, 자신과 내집단에 대한 태도, 자존감, 내집단과의 동일시 간의 일관성과 균형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암묵적인 사회인지, 즉 암묵적인 인종에 대한 태도, 암묵적인 자존감, 암묵적인 동일시를 측정할 결과, 소수집단인 미국계 히스패닉인 경우, 성인일수록 이들 간에 일관성이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보였다. Aboud(1987)도 인종에 대한 태도와 인종에 대한 정체성과 혼동치 말 것을 강조하였으며, 인종집단에 대한 선호를 그 인종집단과 동일시하는 지표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수집단과 다수집단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소수집단의 사회적 행동을 절대적이고 일반화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그들이 사는 곳의 정치적이고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Lo Coco, Inguglia, & Pace, 2007). 예로써, Verkuyten (1991,199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네덜란드계 다수집단인 아동 및 청소년과 소수집단(터어키, 모로코, 수리남)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종(민족) 정체성에 대한 평가와 인종(민족)집단에 대한 선호도의 관계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에서 모두 인종(민족) 정체성이 높을수록 인종(민족)집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그리고 다수집단 뿐만 아니라, 소수집단에서도 내집단에 대한 선호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소수집단은 다수집단보다 덜 두드러진 내집단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외집단에 대한 비호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다수집단은 내집단 선호도가 소수집단보다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외집단에 대한 비호감을 나타냈다.

Laosa(1984)는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잘못된 동일시(misidentification)”와 “외집단 선호” 현상은 소수집단에 대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재평가 결과로서 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0세기 중반까지 우세한 인종집단의 가치만 단지 장려하는 미국의 정치 문화적 상황에서는 우세한 인종집단을 선호하는 것이 열등감을 피하는 효과적

인 전략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다인종 다문화적 사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맥락에서 인종은 더 이상 차별의 원천이 아니며, 자신이 인종을 부인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고, 두 문화의 공존(biculturalism)과 같은 새로운 표현 형태를 언급하였다.

#### 암묵적 및 명시적인 사회적 태도의 측정방법

사회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 최근에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규범적 압력이 작용하는 것을 줄이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자각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암묵적인 측정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암묵적인 측정은 초기에 점화(priming)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범주화 현상이나 내집단 우호현상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이후 Greenwald, McGhee와 Schwartz(1998)는 암묵적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이하 IAT)를 고안하여 대상(기억 속에 있는 개념들)의 정신적 표상들 간에 자동적인 연합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최근 메타분석에 의하면 IAT는 전통적인 명시적 자기보고식 검사보다 차별과 같은 행동을 더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eenwald, Poehlman, Uhlmann, & Banaji, 2008). IAT 측정방법은 두 범주 과제에서 수행속도를 계산하여(IAT 효과로 불리기도 함), 반응들의 연합이 더 빠르고 쉽게 일어날수록, 반응이 더 강하게 연합된 것으로 해석한다(Greenwald, Nosek, & Banaji, 2003).

국내에서도 IAT를 활용한 연구로서 지역 편견에 대한 진실된 태도를 측정할 연구(홍영오, 이훈구, 2001), 성에 대한 편견(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4), 성 고정관념이 암묵적인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조혜자, 방희정, 2003), 개인과 관계에 대한 암묵적 표상을 측정할 연구(방희정 등, 2005),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에서 누구와 자신을 암묵적으로 동일시하며 자동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 알아본 연구(조혜자 등, 2005), 친밀-실리관계에서 어떠한 암묵적 표상을 보이는 지 살펴본 연구(조숙자 등, 2006) 등이 있다. 또한 임기순(2005)은 서구지향-동남아시아 경멸이라는 인종(민족)에 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국인의 사회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명시적인 방법과 암묵적 측정방법인 IAT를 이용하여 서구와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권위주의적

성격 및 외국체류경험 변인들과 연계하여 비교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회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IAT 연구들은 주로 언어자극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단일한 언어자극으로 다양한 인간범주를 복합적으로 함께 내포시키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으므로, 조혜자와 방희정(2006)은 암묵적인 수준에서 자기범주화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 인종, 연령을 변화시킨 얼굴사진들을 자신 및 타인과 관련된 단어들과 함께 분류하도록 하는 암묵적 연합검사를 실시하였다.

암묵적인 태도 측정법과 달리 명시적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주로 질문지를 통해 사회적 태도를 측정한다. 특히 명시적 선호도검사는 암묵적으로 측정된 결과들과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척도이다. 이 검사는 두 집단 중 더 선호하는 집단을 선택한 횟수를 계산하여 암묵적 태도 검사에서 나온 결과와 비교한다. 이 외에도 집단에 대한 명시적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각 집단에 대해 호감도, 신뢰성, 사회적 거리감(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에 포함시키고 싶은 정도)을 평가하는 평정척도들이 있다(김혜숙, 2007). 본 연구에서는 인종에 대한 태도를 암묵적 및 명시적 수준에서 모두 측정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같은 공간에 체류 중인 외국인인 인종별로 다양하게 선택하여 한국인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인과 외국인인 인종(한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에 대한 암묵적 및 명시적 태도에서 각각 내집단 선호경향을 보일 것이다.

사회정체성이론과 사회범주화이론을 통합한 모델에 따르면(Nesdale, 2000), 각 인종집단마다 내집단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보이므로, 한국인과 외국인들은 각각 내집단에 대한 선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2. 한국인과 외국인인 인종(한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에 대한 암묵적 및 명시적 태도에서 각각 외집단에 대해 편견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사회정체성이론과 사회범주화이론을 통합한 모델에 따르면(Nesdale, 2000), 각 인종집단마다 외집단에 대해 비

선호적 태도를 보이므로, 한국인과 외국인들은 각각 외집단에 대해 비선호하는 편견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3. 성인들은 인종범주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암묵적 태도발달이론에 따르면(Baron & Banaji, 2006), 10세 이후에는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4.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인종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더 많을 것이다. 민경환(1989)은 편견에 빠지기 쉬운 독특한 성격을 권위주의 성격이라고 지칭하고, 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S대학 한국 남녀 대학생 121명(남자 49명, 여자 72명)과 E대학과 A대학에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대학생 53명(백인 22명, 흑인 11명, 아시아인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한국대학생은 일반심리학과 아동발달심리학 강의 시간에 실험실습으로 참여하였다. 외국인 대학생은 대학교 부설 언어교육원과 국제대학원을 통해 모집되었고 실험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외국학생의 경우, 백인학생은 프랑스(9), 독일(7), 미국(4), 오스트레일리아(1), 모로코(1)이었으며, 아시아계학생은 베트남(3), 인도네시아(5), 필리핀(3), 서남아시아(3), 싱가포르(2), 인도, 스리랑카, 네팔 등지에서 온 학생들이었다. 흑인대학생은 미국계 흑인(1)명을 제외하고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이었다.

#### 측정도구

#####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본 연구에서 실시된 암묵적 연합검사(IAT)는 백인-한국인 IAT, 흑인-한국인 IAT, 동남아인-한국인 IAT, 동남아인-흑인 IAT의 총 4세트이다. 각 IAT는 7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피험자마다 4세트를 모두 수행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각 단계별로 반복시행횟수를 원래 프로그램화된 시행횟수의 절반으로 축소시켜 실시하였다. 각 IAT 세트 내에서는 제시순서에 따른 효과

를 없애기 위해서 피험자별로 역균형화 되어있다. 아울러 각 단계의 첫 번째 시행은 예비시행으로서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오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X' 표시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답을 해야만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도록 프로그램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암묵적 연합검사는 표적자극으로 아동의 칼라사진을 각 인종마다(한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 남녀별로 각각 3장씩 사용하였다. 실시 이전에 대학원생 20명에게 사진자극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실시하여 호감도가 크게 다른 사진자극을 제거함으로써 인종집단 간의 호감도가 유사하도록 하였다. 속성자극으로 긍정개념(기쁨 joy, 사랑 love, 즐거움 fun, 행복happiness, 멋진 nice, 평화로운 calm)과 부정개념(짜증 annoying, 미움 hate, 화난 mad, 상처 scar, 무서운 horrible, 역겨운 yucky)의 단어자극을 사용하였다. 각 피험자마다 백인-한국인 IAT, 흑인-한국인 IAT, 동남아인-한국인 IAT, 동남아인-흑인 IAT의 총 4세트가 시행되었으며, 순서효과나 연습효과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행순서를 피험자마다 교차균형화 하였다.

#### 명시적 태도 검사 질문지

외국인용 명시적 검사질문지는 박사 과정생 2명이 공동으로 영역을 한 후, 이중 언어 사용자를 통해 검토되었다.

(1) 암묵적 연합검사와 대비되는 인종에 대한 명시적 선호도 검사 : 암묵적 연합검사에서 제시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둘 씩 짝 지워 만든 사진첩을 피험자에게 보여 주면서, 피험자에게 “누가 더 좋은가?”라는 질문을 한 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답안지에 체크하게 한다.

(2) 인종집단에 대한 호감도, 신뢰성, 사회적 거리(친구 삼고 싶은 정도/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정척도 : 한국인, 백인, 흑인, 동남아인에 대한 호감도, 신뢰성, 사회적 거리감(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정도)을 5점 척도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집단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 친구삼고 싶은 정도, 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평정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선호도의 Cronbach 알파가 0.56, 신뢰도는 0.63, 사회적 거리감은 0.78이었으며, 각 점수를 백

분율로 환산하여 평균을 산출한 명시적 태도지수의 Cronbach 알파는 0.81이었다.

(3) 권위주의 성격척도 : 민경환은(1989)이 제작한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로서 원래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9개의 하위척도영역(인습주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반 내성주의, 미신성과 고정 관념적 사고,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투사성, 성) 중에서 인종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권위주의적 공격성(1, 2, 5, 11번 문항), 미신성과 고정 관념적 사고(3, 6, 7, 10번 문항),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4,9번 문항)과 반 내성주의(8번) 4개의 하위 척도에 해당되는 11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권위주의 성격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 알파가 .71이었다.

#### 연구절차

박사과정 연구생과 대학원 재학 중인 보조연구자가 피험자에게 IAT에 대한 실험절차를 설명하면서 시범을 보였고 각 피험자가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었다. IAT 각 세트는 모두 7단계로 구성되어있는데 제시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1, 2 단계는 연습단계로 한국/외국아동의 사진자극을 구분하는 것과 긍정/부정 단어를 구분하는 것이다. 3단계는 앞의 두 범주를 합쳐서 제시되는 자극을 지시에 따라 분류하는 연습단계이며, 4단계는 3단계와 동일하되 실전단계이다. 5단계는 연습단계로 표적자극인 아동사진의 좌우 위치를 바꾸어 제시하며 6단계는 3단계와 동일한 조합과제를 좌우 위치를 바꾸어 실시하는 연습단계이다. 7단계는 6단계와 동일한 방식의 실전단계이다. 각 피험자마다 총 4세트의 IAT를 수행하되 순서효과나 연습효과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 전 실험용 컴퓨터마다 네 세트의 IAT를 각각 다른 순서로 설치하였다. 암묵적 연합검사를 마친 후, 명시적 태도검사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 자료 분석

첫째로, 암묵적 연합검사에서 산출된 결과처리되는 평균 반응시간에서 최초의 조합과제의 평균반응시간을 뺀 차이 값을 각 블록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얻어진 값, 즉, D라는 IAT 효과크기(effect size)를 사용하였다(Greenwald,

Nosek, & Banaji, 2003). 예를 들어, 백인-한국인 IAT에서 산출된 백인선호도 D값이 0보다 클수록 백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나타내며, D값이 0 이하이면 백인보다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음을 나타낸다. 기본적인 점수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반응시간이 10,000msec보다 큰 회기나 300msec미만인 반응시간을 보인 회기가 10% 이상인 참가자 자료를 삭제한다.

- 3, 6단계 및 4, 7단계의 모든 회기들에 대한 총괄적인 표준편차를 계산한다.

- 3, 4, 6, 7단계의 평균 반응시간을 계산하여, (6단계 평균-3단계 평균)과 (7단계 평균-4단계 평균)의 두 차이 점수를 계산한다.

- 각 차이 점수를 관련된 총괄적인 표준편차로 나눈다.

- D=두 결과 값에 가중치를 동일하게 둔 평균을 사용하며,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반응시간이 400ms 미만의 반응시간을 보인 회기를 선택적으로 삭제하는 D2 방법을 사용하였다.

위의 절차를 따라 산출된 4가지 D점수(IAT효과크기) 즉, 백인선호도 D점수, 흑인선호도 D점수, 동남아인선호도 D점수, 흑인과 비교된 동남아인 선호도 D점수를 종속 변수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 산출된 4세트의 D점수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복측정에 의한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하였다. 즉, 피검자의 인종에 따라 각 인종집단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검자가 속한 인종을 2범주(한국인/외국인)와 4범주(한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로 각각 구분하여, 2혹은 4(피험자가 속한 인종집단, 집단 간 변인)×4(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 피험자내 변인)의 혼합설계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로, 암묵적 연합검사와 대비가 되도록 실시된 명시적 선호도검사에서는 선호하는 집단을 선택한 횟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뒤, 암묵적 연합검사와 대비해보기 위해서 각 점수에서 평균점수를 제하여 0점 이상이면 백/흑/동남아인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0점 이하이면 한국인선호도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산출된 4종류의 명시적 태도점수를 종속변수로 해서, 반복측정에 의한 2혹은 4(피험자가 속한 인종범주, 집단 간 변인)×4(인종에 대한 명시적 선호도, 피험자 내 변인) 혼합설계 변량분석

을 시행하였다.

셋째로, 평정척도를 통해 각 인종집단에 대해 얻어진 호감도, 신뢰성, 사회적 거리감(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정도) 점수들을 반복측정설계에 따라 종속변수로 삼고,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혼합설계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로, 권위주의 성격점수와 암묵적 및 명시적 검사(명시적 선호도검사, 집단에 대한 호감도, 신뢰성, 사회적 거리 평정척도)들을 통해 얻어진 점수들 간에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 결 과

### 2범주 피험자 인종변인에 따른 암묵적 태도

피험자의 인종(한국인/외국인)에 따라 암묵적 연합검사에 의해 측정된 4세트의 암묵적 태도 점수들(백인-한국인 선호도, 흑인-한국인 선호도, 동남아인-한국인선호도, 동남아인-흑인 선호도)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복측정에 의한 2(한국인/외국인, 집단 간 변인)×4(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 피험자 내 변인)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그림 1). 피험자 인종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1, 168)=59.60, p<.001$ , 피험자 내 효과검정 결과, 암묵적 태도와 피험자의 인종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F(3,504)=7.41, p<.001$ . Bonferroni에 의한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백/흑/동남아인과 한국인의 암묵적 태도를 각각 비교한 결과(그림 1), 암묵적 태도 D점수가 모두 음수였으며 상대적으로 점수가 큰 편으로 강한 내집단 선호를 나타냈다. 외집단에 대한 암묵적 태도는 백인>흑인, 동남인 순으로 선호도가 낮았으며( $M_{\text{백인선호도}}=-.25, SD=.44; M_{\text{흑인선호도}}=-.51, SD=.41; M_{\text{동남아인선호도}}=-.55, SD=.39; M_{\text{동남.흑인선호도}}=-.01, SD=.43$ ),  $F(3, 166)=35.90, p<.001$ , 흑인선호도와 동남아인 선호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35$ .

반면에 국내 체류하는 외국대학생은 인종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에서 백인선호도와 흑인선호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국내체류 외국학생은 백인에 대해 선호도를 보이고 흑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M_{\text{백인선호도}}=.12, SD=.42; M_{\text{흑인선호도}}=-.15, SD=.58; M_{\text{동남}}=-.07, SD=.46; M_{\text{동남.흑인선호도}}=.03, SD=.41$ ),  $F(3, 166)=3.14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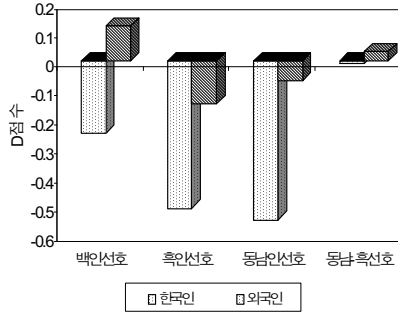


그림 1. 2 인종범주에 따른 암묵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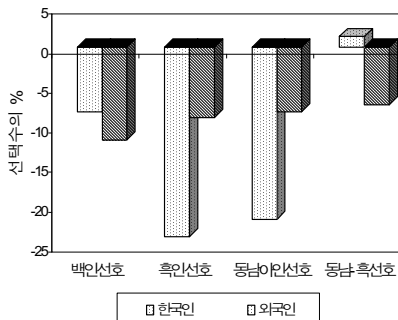


그림 2. 2 인종범주에 따른 명시적 선호도

.05. 한국대학생과 외국대학생 간에 암묵적 태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한국학생은 강한 내집단선호를 보인 반면, 국내체류 외국학생은 인종에 상관없이 백인선호를 보였다. 또한 한국학생은 국내체류 외국학생들에 비해 동남아인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하게 낮았다(그림 1).

2범주 피험자 인종변인에 따른 명시적 선호도

IAT와 대조되는 명시적 선호도 검사의 결과에 따르면 (그림 2), 피험자 집단 간에는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피험자 내 효과검정 결과, 명시적 선호도와 피험자의 인종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F(3,504)=7.41, p<.001$ . Bonferroni에 의한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백/흑/동남아인과 한국인의 명시적 선호도를 각각 비교한 결과(그림 2), 한국학생의 명시적 선호도는 모든 집단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음수로 나타나 강한 내집단 선호를 나타냈다. 외집단에 대한 선호도는 백인 > 흑인, 동남아인 순이었으며( $M_{\text{백인선호}}=-8.09, SD=2.71$ ;

$M_{\text{흑인선호}}=-23.98, SD=2.65$ ;  $M_{\text{동남아인선호}}=-21.71, SD=2.59$ ;  $M_{\text{동남-흑인선호}}=1.43, SD=2.70$ ),  $F(3,171)=19.17, p<.001$ , 동남아인 선호도와 흑인선호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1.0$ . 한국인의 명시적 선호도는 암묵적 태도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국내체류 외국인의 경우, 그림 2에서 보듯이 백/흑/동남아인과 한국인을 각각 비교하였을 때, 명시적 선호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M_{\text{백인선호}}=-11.77, SD=4.11$ ;  $M_{\text{흑인선호}}=-8.94, SD=4.02$ ;  $M_{\text{동남아인선호}}=-8.15, SD=3.93$ ;  $M_{\text{동남-흑인선호}}=-7.28, SD=4.10$ ),  $F(3, 171)=0.26, p=0.86$ .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외국인은 명시적 선호도에서는 암묵적 태도와 달리 백인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지 않았다.

4범주 피험자 인종변인에 따른 암묵적 태도

피험자 집단을 한국인/백/흑/동남아인으로 세분하여 총 4범주의 피험자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피험자의 인종집단에 따라 암묵적 및 명시적 태도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반복측정에 의한 4(한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집단, 집단 간 변인)×4(인종에 대한 암묵/명시적 태도, 피험자 내 변인)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인종에 따라 암묵적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피험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3, 166)=22.47, p<.001$ , 피험자 내 효과검정 결과, 피험자가 속한 인종과 암묵적 태도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F(9, 498)=3.45, p<.001$ .

Bonferroni에 의한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백/흑/동남아인과 한국인의 암묵적 태도를 각각 비교한 결과(그림 3), 우선 국내체류 백인 학생의 경우에는 암묵적인 태도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백인 > 한국인 > 동남아, 흑인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냈고( $M_{\text{백인선호}}=.14, SD=.48$ ;  $M_{\text{흑인선호}}=-.33, SD=.66$ ;  $M_{\text{동남아인선호}}=-.20, SD=.59$ ;  $M_{\text{동남-흑인선호}}=-.06, SD=.41$ ),  $F(3, 164)=4.03, p<.0.1$ , 동남아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흑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1.0$ . 국내체류 백인학생들은 암묵적 수준에서 내집단 선호를 보였고, 외집단에 대해서는 한국인을 가장 선호하고, 동남아인과 흑인에 대한 선호수준이 가장 낮았다.

국내체류 흑인학생의 경우에는 백/흑/동남아인과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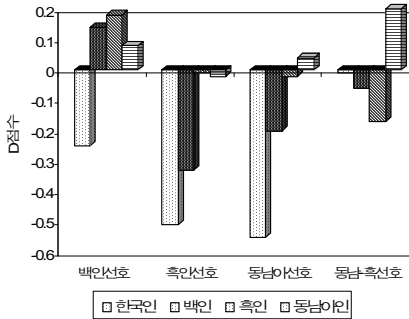


그림 3. 4 인종범주에 따른 암묵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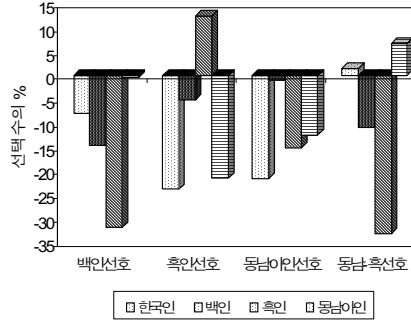


그림 4. 4 인종범주에 따른 명시적 선호도

인의 암묵적 태도를 각각 비교하였을 때, 암묵적 태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_{\text{백인선호}}=.18, SD=.35; M_{\text{흑인선호}}=-.01, SD=.47; M_{\text{동남아인선호}}=-.02, SD=.37; M_{\text{동남흑인선호}}=-.17, SD=.25, F(3, 164)=1.07, p=0.36$ .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국내체류 흑인학생들은 내집단 선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외집단인 백인과 한국인에 대한 선호가 경미하게 더 높은 경향이 약간 있었으며 동남아인과 비교되었을 때에는 내집단 선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국내체류 동남아학생들의 경우에는 암묵적인 태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_{\text{백인선호}}=.08, SD=.38; M_{\text{흑인선호}}=-.02, SD=.49; M_{\text{동남아인선호}}=.04, SD=.30; M_{\text{동남흑인선호}}=.20, SD=.42, F(3, 164)=0.73, p=0.54$ . 즉, 국내체류 동남아인들은 암묵적인 수준에서 인종에 따른 선호나 비선호적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동남아인은 흑인 및 한국인과 비교했을 때에는 내집단선호를 보였으며, 외집단에 대해서는 백인>한국인>흑인 순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 4범주 피험자 인종에 따른 명시적 선호도

4범주로 구분한 피험자의 인종에 따라서 IAT와 대조를 이루는 명시적 선호도에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피험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피험자 집단 내 효과검정 결과, 피험자가 속한 인종과 명시적인 태도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 $F(9,513)=6.73, p<.001$ (그림 4).

Bonferroni에 의한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백/흑/동남아인과 한국인의 명시적 선호도를 각각 비교한 결과(그

림 4), 국내체류 백인 학생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선호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_{\text{백인선호}}=-.14.77, SD=6.27; M_{\text{흑인선호}}=-5.09, SD=6.01; M_{\text{동남아인선호}}=-0.91, SD=6.09; M_{\text{동남흑인선호}}=-10.77, SD=6.18, F(3, 169)=1.27, p=0.29$ .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명시적 선호도에서 국내체류 백인학생은 내집단선호를 나타내지 않았고, 외집단인 한국인, 흑인과 동남인에 대한 태도 간에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암묵적 수준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내체류 흑인학생의 경우에는 백/흑/동남아인과 한국인의 명시적 선호도를 각각 비교하였을 때, 명시적 선호도 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_{\text{백인선호}}=-31.89, SD=9.80; M_{\text{흑인선호}}=12.56, SD=9.53; M_{\text{동남아인선호}}=-15.22, SD=9.52; M_{\text{동남흑인선호}}=-33.22, SD=9.66, F(3, 169)=6.09, p<.001$ . 명시적 수준에서 국내체류 흑인학생은 동남아인과 한국인과 대비해서 강한 내집단 선호를 보였으며, 백인선호를 보이지 않았다.

국내체류 동남아 학생들의 경우에는 백/흑/동남아인과 한국인의 명시적 선호도를 각각 비교하였을 때 명시적 선호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_{\text{백인선호}}=-0.55, SD=6.27; M_{\text{흑인선호}}=-21.59, SD=6.10; M_{\text{동남아인선호}}=-12.50, SD=6.10; M_{\text{동남흑인선호}}=6.82, SD=6.18, F(3, 169)=4.33, p<.01$ . 명시적 수준에서 국내체류 동남아 학생은 흑인과 대비하였을 때 내집단선호를 보였으나 한국인과 대비되었을 때에는 내집단 선호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 아울러 국내체류 동남아학생들은 백인과 한국인에 비해 흑인에 대한 비선호적 태도를 나타냈다.  $p<.05$ .

암묵적인 태도와 명시적인 선호도를 종합하여 비교해

표 1. 명시적 평정척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선호도				신뢰도				사회적거리-친구삼기				사회적거리-내집단			
	한국인	백인	흑인	동남인	한국인	백인	흑인	동남인	한국인	백인	흑인	동남인	한국인	백인	흑인	동남인
한국 학생	3.96 (.86)	3.31 (.75)	2.89 (.76)	2.84 (.78)	3.58 (.81)	2.99 (.79)	2.69 (.78)	2.56 (.75)	4.30 (.81)	3.93 (.92)	3.47 (1.1)	3.31 (1.0)	4.42 (.79)	3.55 (1.0)	3.11 (1.1)	3.20 (1.1)
백인 학생	4.34 (.78)	3.48 (.63)	3.43 (.76)	3.70 (.59)	3.70 (.82)	3.20 (.67)	3.11 (.62)	3.34 (.64)	4.14 (.99)	3.68 (1.0)	3.64 (1.0)	3.68 (.95)	3.62 (1.2)	3.81 (1.0)	2.67 (1.2)	3.05 (1.2)
흑인 학생	4.38 (.92)	3.88 (.84)	5.00 (.00)	3.88 (1.1)	4.13 (.84)	3.50 (1.2)	4.50 (.76)	3.00 (1.3)	3.63 (1.4)	3.63 (1.4)	3.88 (1.4)	3.25 (1.4)	2.38 (1.8)	1.63 (.74)	4.00 (1.6)	2.13 (1.6)
동남 학생	3.9 (.77)	3.48 (1.2)	2.86 (1.2)	4.00 (.95)	3.62 (.92)	3.29 (1.1)	2.90 (1.0)	4.00 (.89)	4.19 (.93)	3.71 (1.3)	3.19 (1.3)	4.38 (.87)	3.00 (1.3)	2.63 (1.4)	2.26 (1.1)	4.47 (1.1)

주. ( )는 표준편차임.

보면, 한국학생들은 암묵적 및 명시적 수준에서 모두 뚜렷한 내집단 선호를 나타내고, 외집단에 대한 선호도는 백인>동남아인, 흑인 순이었다. 이처럼 한국인은 인종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반면에, 국내체류 외국인 학생들은 암묵적 수준에서 한국인에 비해 백인을 선호하였으나, 명시적 수준에서는 백인선호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 학생 중 백인과 흑인학생들은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선호도 간에 두드러지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평정척도를 토대로 한 명시적 태도

한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 집단에 대한 명시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IAT와 대비되는 명시적 선호도검사 외에 평정척도를 통해 각 집단에 대한 호감도, 신뢰성, 사회적 거리(친구삼고 싶은 정도, 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평정척도를 통해 얻은 점수들을 반복측정에 의해 4 (피험자가 속한 인종집단, 집단 간 변인)×4(한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에 대한 호감도, 신뢰성과 사회적 거리, 피험자내 변인)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호감도는 피험자의 인종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본 결과, 피험자 집단 간에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피험자 내 효과검정 결과 피험자가 속한 인종에 따라서 인종에 대한호감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9, 507)=7.21, p<.001$ . 국내체류 백인을 제외한 한국인, 흑인, 동남아인은 모두 명시적 평정척도에서 내집단

을 가장 선호한 반면, 백인은 내집단 우호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은 다른 집단에 비해 동남아인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한국체류 외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다.

각 인종집단에 대한 신뢰성 평정척도에서는 호감도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사회적 거리를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인 친구삼고 싶은 정도에 대한 평정척도 결과, 피험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피험자 내 효과검정 결과, 피험자의 인종집단에 따라 친구삼고 싶은 정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9, 507)=5.49, p<.001$ . 한국인의 경우는 한국인 >백인>흑인, 동남아인 순으로 친구삼고 싶은 정도를 나타냈다. 한국체류 백인학생은 한국인을 가장 친구로 삼고 싶은 반면, 흑인을 가장 덜 친구로 삼고 싶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한국체류 동남아학생들은 내집단과 한국인을 가장 친구로 삼고 싶어하는 반면, 흑인에 대해서 친구삼고 싶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회적 거리를 나타내는 평정척도 중 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정도가 피험자의 인종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본 결과, 피험자 집단 간에 .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피험자 내 효과검정 결과 피험자가 속한 인종집단에 따라 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정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9, 498)=19.07, p<.001$ . 한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 모두 자신과 동일한 인종범주에 속하는 내집단을 가장 사회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인종집단에게 인종이라는 범주는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범주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인종별로 명시적인 태도와 암묵적인 태도 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인/흑인/동남아인의 경우에는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 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국내체류 백인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정도(사회적 거리감)와 백인에 대한 암묵적 선호도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443, p<.05$ ), 즉, 국내체류 백인학생들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수준에서 백인을 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암묵적인 수준에서도 백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 권위주의 성격과 인종에 대한 태도의 관계

권위주의 성격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편견적 태도와 관련이 높다는 연구결과(민경환, 1989)를 토대로 우선, 권위주의적 성격은 인종 및 남녀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지 살펴 보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인종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여, 흑인>동남아인>한국인>백인 순으로 권위주의적 성향이 높았다,  $F(3,167)=13.191, p<.001$ . 인종별로 권위주의적 성격과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권위주의 성격은 암묵적 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명시적인 수준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인종별로 권위주의 성격과 명시적 태도 간에 상관관계의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학생들의 경우에는 권위주의적인 성격 척도가 높을수록 명시적 수준에서 동남아인과 흑인에 대해 비선호적 태도를 보였다. 동남아인에 대해서 한국학생들은 명시적인 선호도( $r=-.186, p<.05$ ), 친구삼기( $r=-.316, p<.001$ ), 내집단포함정도( $r=-.234, p<.01$ )에서 모두 권위주의적 성격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흑인에 대해서는 권위주의적 성격과 친구삼기( $r=-.227, p<.05$ )와 내집단포함정도( $r=-.215, p<.05$ )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국인은 권위주의 성격이 높을수록 특히 동남아인에 대한 비우호적 편견이 심했다.

국내체류 흑인학생들의 경우에는 권위주의적 성격이 높을수록 흑인을 내집단으로 포함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r=.765, p<.05$ ), 국내체류 동남아학생들은 권위주의적 성격이 높을수록 백인선호도가 높았다( $r=.527, p<.05$ ), 반면에 국내체류 백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권위주의적 성격과 암묵적 및 명시적 태도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처럼

권위주의적 성향이 높을수록 다른 집단에 대해 비우호적이거나 내집단에 대한 우호와 같은 편견적 태도를 보였으며, 나타나는 양상은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다문화 시대 한국인들이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대학생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대학생들 간에 인종에 대한 태도를 암묵적 및 명시적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첫째, 각 인종집단마다(한국/백인/흑인/동남아인 학생) 내집단 선호태도를 보였으며, 인종에 따라 내집단 선호경향이 드러난 태도의 수준과 양상은 달랐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암묵적 수준 뿐 만 아니라 명시적 수준(IAT와 대조되는 명시적 선호도와 평정척도에 의한 명시적 호감도/신뢰도/친구삼고싶은 정도/내집단 포함정도)에서 모두 내집단 선호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내체류 백인학생은 암묵적 수준에서 내집단 선호를 보였으나 명시적 수준에서는 내집단 선호를 나타내지 않았다. 국내체류 흑인학생은 암묵적 수준에서 내집단선호를 보이지 않았지만, 명시적 수준에서는 동남아인과 한국인에 비해서 강한 내집단 선호를 나타냈다. 국내체류 동남아인의 경우에는 암묵적 수준에서는 내집단 선호를 보이지 않았지만, 명시적 수준에서는 내집단 선호 경향이 외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흑인과 대비하였을 때에는 내집단 선호를 보였으나, 한국인과 대비되었을 때에는 내집단 선호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각 인종집단마다 암묵적이거나 명시적 수준에서 내집단 선호경향을 나타냈다.

사회 정체성 및 사회범주화이론을 통합한 모델(Nesdale, 2000)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자기가 속한 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집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각 인종집단마다 내집단 선호경향을 나타내어 사회 정체성 및 사회범주화이론을 통합한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내집단 선호경향이 드러나는 태도의 수준이나 강도 및 맥락적 상황(예를 들면, 비교되는 외집단의 종류)은 인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 구성원이 거주하는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인 맥락적 상황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된다.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였던 한국인은 비교되는 외집단의 종류에 상관없이 암묵적 및 명시적 수준에서 모두 일관되게 내집단 선호경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국내체류 백인학생의 경우에는 암묵적 수준에서 내집단 선호를 보였으나 명시적 수준(IAT와 대조되는 명시적 선호도와 평정척도에 의한 명시적 태도)에서 내집단 선호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다수집단으로 간주되는 백인집단의 경우에 인종편견을 금기시하는 규범적 압력을 의식하므로 백인 선호적 태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며 이러한 경향 때문에 암묵적 수준과 명시적 수준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소수(약자)집단으로 간주되는 국내체류 흑인학생의 경우에는 암묵적 수준에서 내집단 선호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명시적 수준에서는 강한 내집단 선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체류 흑인학생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나 암묵적 수준에서 오히려 백인 선호의 경향이 있었다. Dunham 등(2007)은 인지-정서 균형 모델에 의거하여 성인일수록 내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것을 인식하면,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집단과의 동일시나 내집단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억제하고, 자신과 내집단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 자존감, 내집단과의 동일시 간에 일관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암묵적인 검사를 사용하여 밝혔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소수(약자) 집단인 국내체류 흑인학생들은 명시적 수준에서는 강한 내집단 선호를 보였지만, 암묵적 수준에서는 외집단 선호 경향을 나타내 Dunham 등(2007)의 주장과 같이 소수 집단의 특성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국내체류 동남아학생의 경우에는 내집단 선호가 명시적 수준에서만 나타났으며, 사회적 위상이 낮은 집단과 비교될 때에는 내집단 선호를 나타낸 반면, 사회적 위상이 높은 백인과 같은 외집단과 대비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외집단 선호경향을 보였다.

둘째로, 한국인은 다른 인종에 비해 서구인들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면에 흑인과 동남아인에 대해서는 비선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인의 외집단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암묵적 및 명시적 수준에서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김용희, 이동하와 최진이(2008)는 암묵적 및 명시적 검증 결과, 한국 사람들이 백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 동남아인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인은 자민족에 대한 내집단 선호가 강한 특성과 더불어, 외집단에 대해서는 서구인들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고 흑인과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비선호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암묵적 태도, 명시적 선호도검사, 평정척도에 의한 명시적 태도검사에서 모두 일관되게 나타났다.

한국인은 외집단에 대해 상대적으로 백인을 선호하고, 흑인과 동남아인들을 비선호하는 이중적인 태도 보였는데, 이와 같이 백인과 비교해서 흑인이나 동남아인처럼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외집단에 대해 비선호하는 편견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백인 아동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인과 흑인에 대한 선호도를 암묵적 및 명시적 수준에서 측정한 결과, 그 집단의 문화적인 위상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났다(Dunham, Baron, & Banaji, 2007). 이처럼 한 집단이 갖는 사회적 지위나 위상은 그 집단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외집단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위상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외국학생들과 비교해볼 때 한국인은 동남아인에 대한 비선호적 태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학생들 중에서 흑인학생들을 제외하고 백인이나 동남아인학생들은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흑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동남아인에 대한 비선호적 태도는 국내체류 백인이나 흑인학생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백인학생은 명시적 수준에서 한국인보다 동남아인을 더 선호하였다. 이는 국내체류 백인학생들의 경우, 한국인과 동남아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아시아인이라는 같은 범주에 포함시켰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다.

반면에 한국학생들은 암묵적 및 명시적 수준에서 흑인 뿐만 아니라 동남아인에 대한 비선호적 태도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동남아인에 대한 한국인의 비선호적 태도는 국내체류 외국학생들의 인종에 대한 태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 중의 하나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한국인 남성과 아시아계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아동수가 급증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왕따’당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다문화시대 한국인이 같은 공간에 더불어 살고 있는 동남아인에 대해 암묵적 및 명시적 수준에서 모두 일관되게 비선호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인권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도 우려할 문제로 보인다.

넷째로, 한국인의 내집단 및 외집단에 대한 태도는 암묵적 수준과 명시적 수준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매우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 암묵적 태도발달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수집단인 경우 5-6세경에 이미 인종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가 형성되며 이는 성인기에도 안정적인 유형을 보이고, 10세 전후부터 인종에 대해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Baron & Banaji, 2006). 그러나 한국인은 강한 내집단 선호경향과 외집단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암묵적 및 명시적 수준에서 모두 일관되게 나타났다.

반면에 국내체류 백인학생과 흑인학생들의 경우에는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가 각기 상이한 양상을 나타냈다. 국내체류 백인학생은 암묵적 수준에서 내집단 선호를 보였으며 사회적 거리감은 흑인과 가장 먼 것으로 보고하였다. 암묵적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체류 백인학생은 명시적 수준(IAT와 대비된 명시적 선호도와 평정척도에 의한 명시적 호감도/신뢰도/친구삼고 싶은 정도)에서 내집단 선호를 드러내지 않아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 간에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내체류 흑인학생은 암묵적 수준에서 내집단 선호를 보이지 않은 반면, 명시적 수준에서는 내집단에 대한 강한 호감도를 표현하였으며 백인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여, 암묵적 수준과 명시적 수준의 태도가 상이한 양상을 드러냈다. 이처럼 백인과 흑인학생은 각각 암묵적 수준과 명시적 수준에서의 태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수준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인 한국인과 대조적이다.

국내체류 동남아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학생처럼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아울러 인종에 따라 매우 심한 태도의 차이를 보인 한국학생과는 달리, 국내체류 동남아학생들은 각 인종에 대한 태도 간에 차이가 별로 없었다. 한국인인 경우 오랫동안 단일민

족이었기 때문에 인종(민족)과 국가의 개념이 동일하게 사용되어왔으며, 인종(민족)이라는 요소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데 매우 강력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인과 달리 동남아인들은 한 국가 안에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를 가진 아시아인들이 섞여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종(민족)과 국가의 개념이 동일하지 않으며 인종으로 구분되는 내집단 선호경향이 한국인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 내에서 여러 인종과 접촉하기 때문에 외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체류 외국학생들과 비교해볼 때, 한국대학생의 인종에 대한 태도는 강한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에 대한 이중적 태도 및 동남아인에 대한 비선호적 태도를 암묵적 수준과 명시적 수준에서 모두 일관되게 나타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집단들이 형성되고 있으나 아직 이들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고정관념, 비선호적 태도가 규범적인 압력 없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태도와 암묵적인 태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처럼 인종에 대한 경직된 태도는 같은 공간에서 다양한 인종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세계화 시대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다섯 번째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종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내적 요인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성격과 편견적 태도와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권위주의 성격은 편견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인은 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일수록 동남아인에 대해 명시적 수준에서 부정적이고 비선호하는 편견적인 태도를 보였다. 권위주의 성격과 편견적 태도와와의 관련성은 각 인종집단마다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외국인 피험자수가 매우 적으므로 결과나 해석 시에 주의를 요하며, 추후 비교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좀 더 많은 탐색이 이뤄져야 할 영역으로 보인다.

요약해볼 때, 본 연구는 다문화, 다인종, 세계화시대에 한국인이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 지 암묵적 및 명시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한국인들은 암묵적 태도 뿐 만 아니라 명시적 수준에

서 비교되는 외집단들의 종류와 상관없이 내집단 선호경향을 일관되게 나타냈다. 외집단에 대해서 한국인은 암묵적 및 명시적 수준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서구인을 선호하고 흑인과 동남아인들을 비선호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뚜렷하게 나타냈다. 특히 국내체류 외국학생들과 비교해볼 때 한국인은 동남아인에 대한 비선호적 태도가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다문화사회에서는 자기 문화에 대한 존중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문화권에 대한 존중과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인의 내집단 선호경향은 자민족 정체성 발달에 중요한 측면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가정의 수가 급증하면서 다인종, 다문화, 세계화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내집단에 대한 강한 선호, 외집단에 대해 양분되고 편파적인 태도와 동남아인에 대한 비선호적 태도는 다문화시대 세계시민으로서의 모습과 괴리가 있다.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였던 한국사회는 다양한 인종과 접촉할 기회가 적었으며, 따라서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태도도 매우 경직되고 미분화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인종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학생들을 인종별로 구분하여 비교해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백인/흑인/동남아 외국학생들의 인종에 대한 태도는 피험자의 수나 한국에 체류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각 인종을 대표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인과 다른 인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이들과 비교할 때 한국인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국내체류 외국학생들은 명시적인 호감도와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친구삼고 싶은 정도에서 인종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와 친밀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국내체류 외국인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높은 특수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험자가 한국인이라는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접촉이론에 따르면 집단 간 접촉은 전형적으로 편견을 감소시킨다고 한다(Pettigrew & Tropp,

2006), 한국체류 외국인들은 한국인과의 많은 접촉으로 인해 호감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인종집단들과 접촉할 기회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적 태도가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현상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집단 간 갈등으로 인해 편견적 태도가 발생한다고 보는 현실적 집단갈등이론의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집단의 위상과 지위가 그 집단에 대한 선호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수집단이론의 측면에서도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집단들이 같은 공간 내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접촉을 통해 집단 간 고정관념을 줄이고 편견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Aronson, Wilson 및 Akert(2005)가 제시하듯이 다양한 범주의 사회집단과 친밀하며 다면적인 접촉, 공통된 목표 하에 집단 간 협동하고 상호의존하는 분위기, 그리고 평등, 다양성, 관용을 선호하는 사회규범과 같은 것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한국인 피험자 수에 비해서 비교집단으로 선정한 국내체류 외국학생들의 표집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인종별로 표집수의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이다. 또한 암묵적 연합검사에서 표적자극으로 성인이 아닌 아동사진을 자극으로 사용한 점이다. 이는 추후 성인 뿐 만 아니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발달적인 관점에서 인종에 대한 태도를 보기 위하여 아동용 자극이 사용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으로는 인종에 대한 태도가 언제부터 어떻게 형성되어 발달되어 가는 지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이러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추후 탈편견적 태도 형성을 위해 효과적인 개입 방법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계획. 서울 : 교육인적자부.
-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

- 회지 :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김현정의 7명 (2004). 청년심리학. 박학사.
- 나은영, 권준모 (2002). 암묵적 연합검사에 의한 지역편견의 강도 측정 및 응용 : 사투. 리 음성자극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1), 51-74.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4(2), 146-168.
- 서선영 (2007). 청소년 흡연에 대한 태도 : 암묵적 태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4). 내·외집단 규범정보가 외현 및 암묵적 편견에 미치는 통제적 영향 : 성 편견과 지역 편견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8(3), 155-186.
- 임기순 (2005). 부정적 태도를 숨기는 상황에서의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와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덕규 (1999). 글로벌리제이션, 그리고 선택 : 국민국가의 미래. 학문과 사상사.
- 조숙자, 방희정, 조혜자, 김현정 (2006). 대학생의 친밀-실리 관계에 대한 암묵적 표상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9(1), 127-147.
- 조혜자, 방희정 (2006). 암묵적인 자기 범주화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1(2), 1-21.
- 한민, 김용희, 이동하, 최진이 (2008). 한국사람들의 인종에 대한 이중적 태도.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 홍영오, 이훈구 (2001). 암묵적 연합검사에 의한 지역편견의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1), 185-204.
- Aboud, F. (1977). Interest in ethnic information : A cross-cultural developmental study.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9, 134-146.
- Aboud, F. (1988). *Children & Prejudice*. Oxford : Basil Blackwell.
- Aronson, E., Timothy, D., & Robin, A. (2005). *Social Psychology*. N.J. : Pearson Education International.
- Banaji, M. R., Baron, A. S., Dunham, Y., & Olson, K. (2007). The development of intergroup social cognition(pp.87-102). In M. Killen & S. Levy(Eds.) *Intergroup relationships : An integrative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Baron, A. S., & Banaji, M. R. (2006). The development of implicit attitudes : Evidence of race evaluations from 6, 10, and adulthood. *Psychological Science*, 17(1).
- Barrett, M. D., & Buchanan-Barrow, E. (2005). *Children's understanding of society studi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London : Routledge.
- Bazerman, M. H., & Banaji, M. R. (2004). The social psychology of ordinary ethical failures. *Social Justice Research*, 17(2), 111-115.
- Berry, John W. (1992). *Cross cultural psychology :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 Bigler, R. S., & Liben, L. S. (2006). A developmental intergroup theory of social stereotypes and prejudice.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Vol.34, 39-89. Blackwell Publishers. University Press.
- Brewer, M. B., & Brown, R. J. (1988). Intergroup relations. In D.T. Gilbert, S.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2, pp.554-594). New York : McGraw-Hill.
- Cunningham, W. A. et al (2004). Seperable neural components in the processing of black and white faces. *Psychological Science*, 82, 62-68.
- Dovidio, J. E., & Gaertner, S. L. (1986).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London : Academic Press.
- Dovidio, J. E., Gaertner, S. L., & Kawakami, K. (2002). Implicit and explicit prejudice and interra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62-68.
- Doyle, A. B., Beaudet, J., & Aboud, F. E. (1987). Developmental patterns in the flexibility of children's ethnic attitud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 3-18.
- Dunham, Y., Baron, A. S., & Banaji, M. R. (2006). From

- American city to Japanese village : the omnipresence of implicit race attitudes. *Child Development*, 77, 1268-1281.
- Dunham, Y., Baron, A. S., & Banaji, M. R. (2007). Children and social groups : A developmental analysis of implicit consistency among Hispanic Americans. *Self and Identity*, 6, 238-255.
- Dunham, Y., Baron, A. S., & Banaji, M. R. (2008). The development of implicit intergroup cogn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 12, 248-253.
- Fazio, R. H. et al (1995). Variability in automatic activation as an unobtrusive measure of racial attitudes : A bona fide pipelin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013-1027.
- Fiske, S. T. (1988). Stereotyp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T. Gilbert, S.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2, pp.554-594). New York : McGraw-Hill.
- Greenman, N. P., & Kimmel, E. B. (1995). The road to multicultural education : Potholes of resistance.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6(5), 360-368.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G., Poehlman, A., Uhlmann, E., & Banaji, M. R. (in press).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II : Meta-analysis of predictive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 1.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197-216.
- Hirschfeld, L. A. (1989). *Race in the making : Cognition, culture, and the child's construction of human kinds*. MIT Press.
- Jahoda, G., Thomson, S. S., & Bhatt, S. (1972). Ethnic identity and preferences among Asian immigrant children in Glasgow : A replicated stud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19-32.
- Milner, D. (1973). Racial identification and preference in "black" British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81-295.
- Moody, J. (2001). Race, school integration, and friendship segregation in Americ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3), 679-716.
- Lo Coco, A., Inguglia, C., & Pace, U. (2007). Children's understanding of ethnic belonging and the development of ethnic attitudes(pp.223-250).
- Nesdale, A. R. (2000).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ethnic preferences and social cognition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01-519.
- Nelson, T. D. (2002). *The Psychology of Prejudice*. Boston : Allyn and Bacon.
- Nosek, B. A., Greenwald, A. G., & Banaji, M. R. (2007).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at age 7 : A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review(pp.265-292). In J.A. Bargh(Ed.), *Automatic processes in social thinking and behavior*. Psychology Press.
- Phelps, E. A. et al (2000). Performance on indirect measures of race evaluation predicts amygdala activation.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2(5), 729-738.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90(5), 751-783.
- Phinney, J. S. (1989). Stages of ethnic identity development in minority group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9(1-2), 34-49.
- Piaget, J. E., & Weil, A. (1951). The development in children of the idea of the homeland and of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International Science Bulletin*, 3, 561-576.
- Poehlman, T. A., Uhlmann, E., Greenwald, A. G., & Banaji, M. R. (2007).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 III. Meta-analysis of predictive validity*. Unpublished manuscript.



- Rudman, A., Phelan, E., & Heppen, B. (2007). Developmental sources of implicit attitud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1700-1713.
- Santrock, J. W. (2004). *Adolescence*. Boston : McGraw-Hill.
- Smith, P. K. (2003). Pla and peer relations. in A. Slater & G. Bremner(Eds.), *An introduction to developmental psychology*(pp.311-333). Malden, MA : Blackwell.
- Tajfel, H., & Turner, J.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Monterey, CA : Brooks/Cole.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 Basic Blackwell.
- Verkuyten, M. (1992). Ethnic group preferences and the evaluation of ethnic identity among adolescents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2, 741-750.
- Williams, J. E., & Morland, J. K. (1976), *Race, color, and the young child*. Chapel Hill, NC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Wilson, D., Lindsey, S., & Schooler, Y. (2000). A model of dual attitudes. *Psychological Review*, 107(1), 101-126.
- Yawkey, T. D., & Blackwell, J. (1974). Attitudes of 4-year old urban black children toward themselves and whites based upon multi-ethnic social studies materials and experienc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7, 373-377.

## **Differences in Explicit and Implicit Racial Attitudes between Korean and Foreign College Students**

**Kyung Ran Row      Hee Jeong Ba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differences in racial attitudes between Korean and foreign college students who are staying in Korea. To examine implicit racial attitudes as well as explicit ones, Implicit Association Tests and the Questionnaires including Explicit Preference Test, Rating Scales for group attitudes and the shortened Authoritarian Personality Scale were used for 121 Korean and 55 foreign participants(22 whites, 11 blacks, 22 asians).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students reveal robust in-group preference both implicitly and explicitly; unfavorable attitudes toward Blacks and Southeast Asians; similarity between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patterns. On the other hands, foreign students show dissimilarity between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patterns; they show white preference implicitly but not explicitly; different patterns are shown according to racial groups and levels of measurement.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multicultural viewpoints.

**Keywords: Explicit; implicit; racial attitudes; Korean; Foreign students**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9월 8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11월 5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11월 9일